

사와 소련간의 오랜 협상 끝에 맺어진 최초의 상업적인 결실이다.

KWU사의 Breger 대변인은 이번 계약은 소련이 앞으로 원자력분야에서 더욱 더 협력관계를 확대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소련의 원자력이용에 관한 국가위원회(GKAE) 위원장인 Protsenko씨는 소련이 웨스팅하우스사와도 이러한 PRA 협력에 관한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다고 했다.

Protsenko씨는 또 서독과의 소형 고온로(HTG)의 공동개발에 관한 협상도 진전을 보아 몇개월내에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했다. 이 계약에는 HTR에 관해 별도로 소련측과 협상을 벌여왔던 Siemens사와 ABB사도 포함돼 있는데 이 두 회사는 상호협력에 관한 협정을 맺을 예정이다.

지난 8월 하순에 체결된 신규의 PRA용역 계약은 서독측의 Siemens사 및 GRS사와, 소련측의 원자력교역기관인 Atomenergoexport(AE-E)사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AEE사가 소련 원자력성을 대신해 서명했다.

이 거래는 1986년과 1987년 4월에 원자력협력에 관해 양국 정부간에 체결된 협정에 따라 실현이 가능했던 것이다.

Protsenko씨는 10월 중순에 가졌던 기자회견에서 Siemens / GRS 양사의 PRA작업은 기본적으로 잘 알려진 소련의 VVER-1000(1,000MW급 PWR) 모델을 체르노빌사고후에 개선한 「VVER-88」 노형을 취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곧 실시될 PRA작업에 언급하면서 「나는 이 작업이 매우 실용성 있는 것으로 본다. 우리자신의 계산결과와 서독의 것을 비교해보려고 한다」고 말하고 현재 PRA작업을 해나가는데 있어 소련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달성 가능한 정확도의 수준문제와, 이 평가작업의 기준이될 신뢰도 데이터와 모델이 부족한 것이라고 했다. 소련 플랜트에서 이러한 데

이터를 수집하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그는 부언했다.

소련과 서독 관계자들은 모두 이 신규의 PRA용역계약의 금액을 밝히지 않고 다만 이 금액이 명목상의 액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KWU사의 Hirschman 이사는 「이 계약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원자력 안전성 분야에서 소련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며 계약금액의 다과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KWU사의 Breyer 대변인도 동사에서는 내년 2월의 촉박한 납품거일을 맞추기 위해 이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KWU사는 소련과의 PWR 안전성에 관한 더 이상의 협력방안을 계속 협의중인데 이에는 기기 시험 및 진단용 장비, 훈련용 시뮬레이터, 전산화된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등이 포함돼 있다.

Breyer씨는 앞으로 더욱 협력관계를 강화시키는데 대한 전망은 작년에 비해 매우 밝아졌다고 했다.

獨蘇間 增殖爐 共同研究

서독과 소련의 고속증식로(FBR)전문위원들이 모스크바에서 9월 5일, 8일간의 회담을 시작했다. 서독측 대표단은 이번 회담의 목적은 두 가지라고 말하고 하나는 상호간에 소련의 시험용 FBR와 서독의 시험용 증식로 KNK-2의 운전경험을 나누는 것이고 또 하나는 FBR 증기발생기의 안전성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독 과학기술성(BMFT) 대변인은 이 회담에서 증식로 안전성의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가능성도 모색될 것이라고 했지만 서독산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모스크바 회담에서 구체적인 합동프로젝트가 성립될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이번 회담은 체르노빌사고후에 체결된 약국간 원자력협정에 따라 Karlsruhe 원자력연구소(KFK)

와 Interatom사간에 지난 여름에 가졌던 약국간 회담에 이어 열리는 것이다.

증식로분야에서의 협력은 작년에 서독 BMFT의 Riesenhuber장관과 소련의 원자력이용 국가평의회(GKAE)의 전회장인 Petrosyants씨간에 조인된 서독/소련간의 양국간 원자력협정의 목표중의 하나다.

증식로를 비롯해 이 협정에 의한 공동연구과제는 대부분 5년계획으로 돼있다.

증기발생기 안전성에 관한 연구는 특히 물과 나트륨의 상호작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BMFT관계자는 말했다. 나트륨은 물과 접촉하면 폭발하는데 1974년 Shevchenko에서 발생한 소련의 BN-350 FBR 원형로 증기발생기의 나트륨 누설사고로 증기발생기에 큰 손상을 입어 이를 보수하고 교체하기 위해 장기간 정지됐었다.

이번 모스크바 회담의 서독대표단장은 KFK사의 증식로 담당 프로젝트 매니저인 Marth씨다. 소련대표단은 이번 회담에서 다음 사항에 관해 보고할 예정이다. BR-10의 실험, BOR-60의 연료연소율, BOR-60의 스크램 및 붕괴열제거, BR-10의 개선작업, BOR-60의 손상된 연료집합체의 방사선방호대책, BOR-60의 연료집합체 제어시스템, 탄화/질화물 증식로연료에 관한 소련의 연구현황등.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와 原子力協定 締結

8월 17일 아르헨티나는 나이지리아와 5년간의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에 조인했다.

이 협정은 원자로 공급과 서비스 수출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 협정에 따라 어떠한 원자력 기술이전도 이에 관한 의정서를 필요로 하며 IAEA 안전보장조치가 적용될 것이라고 아르헨티나 관계자가 말했다.

나이지리아는 1976년에 원자력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최근에 와서 비로서 적극적으로 원자력 과학자와 기술자를 모집, 양성하기 시작했으며 원자력 관련 R&D는 2개의 국립대학에서 하게 되며 이 R&D를 기화로 아르헨티나의 연구용 원자로를 주문하게 되기를 아르헨티나 관계자들은 희망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또 Bouchi와 Borno 두 곳에서 우라늄광을 개발중인데 아르헨티나의 산업계 간부들은 나이지리아의 원자력사업은 취약한 경제력과 막중한 부채로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자이레도 아르헨티나와 원자력 협력관계를 맺는데 대해 관심을 표명했으며 원자력시설을 방문하기 위해 금년중에 과학자사절단을 아르헨티나로 파견할 것이라고 아르헨티나 정부 소식통이 전했다.

Atucha-1 停止 長期化 될듯

357MW의 Atucha-1호기는 연료채널 보수관계로 최소 35일간 내지 경우에 따라서는 4개월간 정지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이 발전소 운영부서인 아르헨티나 원자력위원회(CNEA)가 밝혔다. 이 발전소는 압력용기 냉각재 채널 하단부의 변형을 보수하기 위해 지난 8월 12일 정지했었다. CNEA 관계자들은 냉각재 채널 2개가 파손된 것 같다고 말하고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KWU사에게 2사람을 파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CNEA 소식통은 손상된 냉각재 채널 밑의 잔해는 미국이나 서독으로부터 도입되는 로봇을 사용해 제거될 것이라고 말하고 특수원격조정 카메라에 의한 채널검사가 끝나는대로 보고서가 작성될 것이라고 했다.